

한국 근대 선불교 산실 정혜사 능인선원 중창

수덕사, 10억투입 내년가을 완공계획

한국 근대 선불교의 산실인 정혜사 능인선원이 중창된다.

선지종찰(禪之宗刹) 덕송총림 수덕사주지 법장은 20일부터 근대 한국최고의 선원으로 주목받아온 정혜사 능인선원의 한국 선불교 역사성을 복원하는 취지에서 대대적인 중창봉사를 시작한다.

예산 수덕사 산내암자인 정혜사 능인선원은 근대 한국불교의 지주와 동량이 되었던 경허 만공스님을 비롯 전각 금오 춘성 청담 해암 벽초 스님 등 수많은 눈 푸른 납자들이 용맹 정진했던 곳이다.

10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2003년 가을 완공예정인 정혜사 능인선원은

선방(40평) 개조, 전통양식의 요사채(60평), 목욕탕(30평), 우물, 해우소(화장실)가 건립된다.

현재 정혜사 능인선원은 1층(16평)과 개조한 2층(10평)을 모두 합해 20여명 밖에 수용할 수 없고, 콘크리트



▷한국근대선불교의 산실인 수덕사 산내암자 정혜사 능인선원의 현모습.

로 건립된 요사채가 협소한 것은 물론 공동 목욕탕 시설이 없는 상황이라 오랜전부터 보수가 요구돼왔다. 수덕사는 정혜사 불사를 위해 이번 동안거부터 선방을 잠정적으로 폐쇄했다.

수덕사 주지 법장스님은 "능인선원은 한국불교의 중흥처로 꺼져가던 선맥을 다시 잇고 법등을 밝힌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지난날의 명성과는 달리 낙후된 모습이 되어 선가의 귀의처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며 "수덕사에서는 근대 선불교의 산실에 걸맞으면서도 위상을 잃지 않는 불사를 하고자 하는 만큼 불자들의 적극적인 불사 동참을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041) 337-6565.

한편 599년 지명법사가 창건한 정혜사는 1930년 만공선사가 암자를 중수하여 가람을 선원으로 재장비, 근현대 불교계를 움직인 고승들을 배출했다. 현존하는 당우로는 1932년에 설립한 능인선원과 1935년에 중창한 관음전 선신각 불유각 요사 등이 있다. 특히 정혜사에는 한국 근대 최초의 조각가인 김복진(1901~1940)의 유일한 완성작품인 관음보살좌상이 봉안돼 있다.

김원우기자

법당옆에 폭 35m 도로 계획 사찰경내엔 154Kv 고압송전탑

자비정사 '노선변경요구', 경산시 '난색'

법당 처마 바로 밑에 폭 35m 도로가 들어서고 사찰 경내지에 154KV 고압송전탑 설치가 예정돼 수행환경 침해가 우려되고 있다.

경산 자비정사주지 청안은 도로 건설과 관련 7일 경산시청을 방문 "시가 도시계획도로 변경시 주민의 권 수렴절차를 무시하고 사찰을 통과하도록 도시계획선을 그른 것은 명백한 불교 탄압"이라고 항의했다. 또 "도시계획도로 선이 사찰 부지 상당 부분을 관통해 도로 개설시 대웅전 철거 위기가 우려되는 등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며 "도시계획도로 선을 사찰에서 20m 정도 뒤로 돌려 줄 것"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산시청은 "계획도로가 확장된 것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변경된 것이라 무리가 없고 한번 정해진 계획이 변경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 용인 화운사주지 해운 경내지에 154KV 고압전류가 흐르는 송전탑 1기가 설치될 예정(송전선로 이격거리 약 150m)이어서 수행환경에 피해가 예상된다.

화운사측은 사찰수행환경 침해를 근거로 용인시에서도 송전탑 설치에 반대의 입장을 나타냈으나 산업자원부가 사업을 강행, 4일자로 승인공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박원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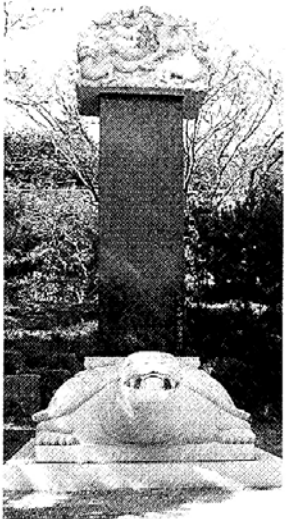
동산스님 행적비 범어사에 우뚝

16일 동산스님 직계 삼자와 문도회는 범어사주지 성의 탑전에서 동산스님 사리탑비 제막식을 봉행했다.

1965년 열반에 들 때까지 한국 불교의 큰 기둥이 되어주었던 동산스님의 사리탑비 제막식은 1967년에 이어 두 번째. 동산스님의 삼자 범어사 경내에 세웠던 비석의 내용 중 동산스님의 행적이 일부 누락된 것을 이번 기회에 보완해서 다시 세운 것이다.

가산불교문화연구원장인 지관스님이 글을 짓고 서예가인 학정 이근홍씨가 글을 쓴 사리탑비의 내용은 동산스님의 사상과 수행가공을 비롯하여 불교정화, 중풍과 선종 진자, 교화, 설법, 지계, 계율, 승려교육, 가람수호 등 스님의 행적 등으로 제법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천미희기자



▷새로 조성한 동산스님 행적비.

"동산(東山)에 해가 뜨니 천지가 혁혁(赫赫)하고 심전(心田)에 해일(暎日)이 나타나 법계(法界)를 동조(洞照)하다..."



▷외국인들에게 한국선을 알릴 부산 남산 국제선원 9일 문을 열었다.

부산 남산국제선원 9일 개원

법회 영어로, 외국인스님·관광객 등에 개방

"Homage to all the Buddhas, Who are present in their glory. At this assembly(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9일 부산 금정구 남산동 남산국제선원(선원장 무심) 개원식에 참석한 눈썹은 외국인 스님들과 국내 불자들은 평소 접하기 어려운 영어 삼귀의로 법회를 시작했다. 이어 우리달 삼귀의가 이어졌고 법회식은 영어와 우리말로 진행됐다. 낯설지만 참신한 이 풍경은 외국인들에게 한국 선을 소개하기 위한 문을 여는 남산국제선원의 첫인상이 되어 참석한 부산 불자들에게 새겨졌다.

남산국제선원장 무심스님은 송산 스님의 망상죄로 84년 송산스님으로 사미계를 받고 86년 범어사 자운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받은 후 서을

회계사 국제선원장을 지내바 있다. 051)518-7913 천미희기자

해원정사, 경로잔치 열어 학생 27명에 장학금 전달

부산 해원정사주지 원혜는 10일 제 7회 경로잔치와 2002년 하반기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해원정사 조실 고산스님, 노기태 부산시 정무부시청 등 500여명의 관내 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연인 축하공연, 해원정사 합창단 축하공연 등이 펼쳐졌다.

한편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조대호 학생을 비롯한 27명에게 총 110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천미희기자

남 제자들과 해운정사 선방 수좌를 비롯 100여명이 참석했다. 무심스님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부산을 찾는 외국인들은 물론 한국 불자들을 선의 세계로 인도하는 도량이 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50평 규모에 선방과 요사채, 공양실을 갖춘 남산선원은 앞으로 외국인 스님, 외국 관광객, 일반 불자들은 물론 선에 관심있는 모든 이들에게 개방된다. 특히 영어로 진행되는 법회는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일반인들에게도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남산국제선원장 무심스님은 송산 스님의 망상죄로 84년 송산스님으로 사미계를 받고 86년 범어사 자운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받은 후 서을

송림사 주지 지공스님은 "자세한 제작 연대를 알 수 없어서 그동안 문화재 지정에 힘썼다"며 "소조 석가모니 목불 등의 문화재 등록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강유신기자

태평양전쟁 무연고희생자 유골·위패 2차 357기 환국...보광사에 봉안

태평양전쟁 한국인 무연고 희생자 유골 및 위패 357기가 올해 두 번째로 조국에 돌아왔다.

세계미술문화교류협회(회장 이백암)와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회장 이종대)는 16일 일본 14개 사찰에 보관돼 있던 한국인 희생자 유골 50구와 위패 307기 등 총 357명의 유골과 위패를 모셔와, 파주 보광사에 봉안했다.

이로써 지난 9월 1차 100기 봉환(본지 300호 391호 15면 기사 참조)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인 희생자 유골 및 위패가 국내 사찰에 봉환됐다.

이번 2차 봉송으로 한국과 일본의 세계평화사, 민간단체들이 주장해왔던 40여만기에 이르는 한국인 희생자 유골 및 위패가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본정부는 공식적으로 미 반환 한국인 유골이 1,100여기에 불과하다고 주장을 해왔다.

세계미술문화교류협회는 앞으로 12월초 제 3차 300기를 들여오는 등 일본 23개 사찰에 보관된 한국인 희생자 유골 및 위패 40만기를 모두 한국시킬 예정이다.

김원우기자

청소년자원봉사 박람회 대전지역 53개단체 참가



▷대전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2002 청소년자원봉사 및 진로탐색박람회 개최모습.

대전광역시청소년자원봉사센터(소장 종실)는 9일부터 10일까지 충무체육관에서 '2002 청소년자원봉사 및 진로탐색 박람회'를 개최했다.

대전지역 53개 관련 단체가 참여한 이번 박람회에서는 효율적인 봉사활동을 위한 △참여기관 홍보 △단체, 청소년 댄스동아리, 전통문화 등의 공연 △3D 애니메이션, 수지철 등의 체험 프로그램 진행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류재희 대전지사장

대구불교방송 창립6돌 기념법회

대구불교방송(사장 성태)은 11일 불교방송 7층 대강당에서 대구사원주지 연합회장 원경스님을 비롯 고운사 주지 혜승, 직지사 주지 자광, 동화사 주지 지성, 은해사 주지 법타 스님 등 3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창립 6주년 기념법회를 개최했다.

대구불교방송 사장 성태스님은 인사말에서 "대구불교방송이 부처님의 참다운 말씀을 이 땅에 전한지 6년을

맞아왔다"며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불교계의 진정한 생활의 동반자이자 단결의 구심점이 되기 위해서는 사부대중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과 동참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2부 축하행사에는 성악가 여정은, 박희숙씨의 불교가곡 공연, 대구예술대학교 교수 김일수씨의 색소폰 연주, 대구불교방송합창단의 합창 등으로 진행됐다. 박원우기자



▷한상선보살이 연화원 불단을 청소하고 있다.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불자' 서울 망우3동 연화원 불자들은 새벽마다 다른 사람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한상선 보살(45, 법성회를 이렇게 부른다.

한 보살은 절에 다니지 5년에 불과한 초심불자. 하지만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생활은 오래도록 절에 다니는 불자들보다 더하다는 평이다.

5년 전 전변화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던 한 보살은 어느 날 가게가 도난을 당해 한 순간에 재산을 잃었다. 여기에서 둘째아이가 장난을 치다 불편을 느낀 것이 친구의 눈에 맞아

송림사 16나한상 등 7건이 전라북도 문화재로 새로 지정됐다. 익산시 송림사 16나한상과 정읍시 정혜사 석조보살입상, 미륵사 석불좌상, 고창군 무송리 석불좌상 등 4건은 유형문화재로, 고창군 문수사 석조승상과 암치리

송림사 16나한상 등 7건 전라북도 문화재로 지정. 선각석불좌상, 용화사 미륵불상 등 3건은 문화재 자료로 각각 지정됐다.

나보다 이웃 먼저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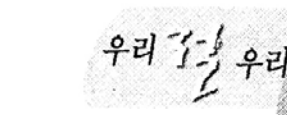
서울 연화원 한상선 보살

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화원에 전화부터 했다. 주지 진봉스님은 따뜻하게 위로하며, 절에 일단 나오라고 했다. 100일 기도비는 법당 청소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그러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일요일 <초보심자경문> <금강경> 교리공부 시간에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기도하고 교리공부 하보니 저절로 살 길이 열렸다. 무

둘째아이가 친구의 병원을 매일 찾아가 진심으로 위로하고, 간호했다. 철저하게 피해자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했다. 다행히 둘째아이가 친구를 실명위기를 넘겼고, 오히려 피해자 친구부모가 가해자 부모인 한 보살에게 감사하다는 얘기를 했을 정도다. 지금은 중국으로 유학간 피해자 친구가 수시로 안부를 묻고, 방학만 하면 가장 먼저 들려 인사를 올 정도가 됐다.

한 보살은 주위의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세계는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가 행복해 질려면 주위 이웃이 행복해져야 한다'는 부처님의 사상에 따라 세상을 보기 때문에 나와 남을 이분법적으로 나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 한보살의 생각이다.

요즘은 한 보살의 신심에 감복한 남편 이창현(법명: 법등) 거사도 함께 절에 다니며 마음을 밝히고 있다. 한상선 보살은 "어려운 시기 부처님을 만나,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고 나서 인생이 너무 즐겁게 바뀌었다"



"봉사단 만들어 사회도움 주고 싶어"

실명되는 위기에 직면했다. 한 보살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주위의 한 불자가 절을 찾아 100일 기도를 해보라고 권했다. 하지만 한 보살은 절에 갈 수가 없었다. 몇 만원 기도비조차 없

었보다 환희심이 났던것은 나도 모르게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다. 자신의 이익보다 손님을 위한 마음이 생기자보니 동네에 연련했다. 하지만 한 보살은 절에 갈 수가 없었다. 몇 만원 기도비조차 없

추천의 말

진봉스님 연화원 주지



한상선 보살은 남 다르게 신심이 깊다. 그러나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한 보살은 종교생활의 자체가 처음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고, 생활속에서 모든 일을 불교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범적인 불자입니다. 또 주위의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않는 그 모습이 참 불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불교는 생활속에서의 실천을 강조합니다. 여러 불자들도 부처님의 훌륭한 생활법문이 삶 속에서 구체화되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며 "앞으로 사찰 내 자원봉사단을 만들어 불교의 사회적 실천에 힘을 보태고 싶다" 말했다. 김원우기자